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An Influence of Record Manager's Job Stress on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State Anxiety

김성원 (Sungwon Kim)**

김성희 (Seonghee Kim)***

초 록

본 연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우울, 상태불안 수준의 차이와, 그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 상태불안 수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해 총 9요인으로 구성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수준, 상태불안 수준을 묻는 설문지를 배포해 최종적으로 98부의 설문데이터를 회수했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매개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모든 요인에서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서 상태불안이 완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우울수준을 낮추기 위해 그들의 상태불안 수준이 필히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job stresses, depression and state anxiety levels relating to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records managers and studying whether the mediating effect of state anxiety levels significantly occurs on the depression followed by their job stresses. So we distributed questionnaires of 9 factors including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to record managers, asking them job stresses, depression, and state anxiety levels, and collected 98 questionnaires finally. We analyzed the effect of mediation on the surveyed data using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full mediating effect of state anxiety level between job stress and depression, and that, therefore, state anxiety levels of the record managers must be managed to lower their depression levels.

키워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록연구사, 직무스트레스, 우울, 상태불안, 매개분석
records management agent, records manager, job stress, depression, state anxiety, mediation

* 이 논문은 2018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물관리전공 석사과정(dkttk1456@naver.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eonghee@ca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8년 2월 18일 ■ 최초심사일자: 2018년 3월 11일 ■ 게재확정일자: 2018년 3월 14일

■ 정보관리학회지, 35(1), 103-127, 2018. [http://dx.doi.org/10.3743/KOSIM.2018.35.1.10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도 이제 19년에 이르렀고, 기록물 관리 분야는 꾸준히 성장을 이루어왔다.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들은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배치대상기관 총 795개 기관들 가운데 581개 기관에 배치되었다. 이는 전년대비 42개 기관에 추가로 배치된 결과로, 그동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던 공공기관들에서의 인식제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다소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현재 다수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이 여전히 전문가로서의 합당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낮은 급여를 받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개 극소수의 인원으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업무와는 상관없는 행정업무들 혹은 부서의 각종 잡무들에 치이는 이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유현경, 김수정, 2016). 물리적 여건이 좋지 못해 지저분하고 불쾌한 서고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거나,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요구하는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에 놓여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근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임에도, 현재 기록관리학에서 해당 전공을 수료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분석

연구는 국내에 전무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에서 다수의 연구사례를 통해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우울, 불안에 관한 연구 역시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직무스트레스, 우울, 불안에 대한 연구는 이미 심리학, 행정학, 경영학 등 각종 사회과학 분야들 뿐 아니라 간호학 등의 보건영역에서까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으며, 그 연구량 또한 가늠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이 누적되어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쌓여갈 것이다. 문헌정보학 안에서도 사서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존재한다. 그만큼 각 직무분야들에서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있어 꾸준한 관심사였다.

기록관리가 중요한 만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심리적인 피해요인들도 당연히 중요하다. 앞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더 나은 근무조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주제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와 관심이 결코 없어서는 안 되기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우울, 불안에 대한 분석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의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 중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우울, 불안수준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선행연구

현재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나 우울, 불안, 매개분석 등의 주제로 진행된 연구는 없는 상황이기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들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 국내에서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직무에 관한 분석은 유현경과 김수정(2016), 박태섭과 강순애(2017), 이을지와 이호신(2016), 정하영과 강순애(2013), 서혜란과 옥원호(2008), 이영학(2009), 송혜진(2013), 임미경(2010) 등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유현경과 김수정(2016)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하고,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기관의 인식개선과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태섭과 강순애(2017)는 설문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IPA Matrix 분석기법을 활용해 직무분석, 고용형태, 경력별로 업무에 대한 인지차이 특성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처리과 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고용형태, 경력에 따라 직무 재교육을 달리하는 등 각기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을지와 이호신(2016)은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의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수행빈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청 기록관리 업무 환경과 문제점을 파악 및 개선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마찬가지로 IPA 분석기법을 활용해 설문조사 결과를 교차분석함으로써,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이 느끼는 일상과 인식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업무 재설계 및 교육과, 중요도가 높으면서도 실질적 수행이 미진한 영역의 업무재설계, 직업적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강

조했다. 정하영과 강순애(2013)는 기록연구사 배치현황 및 업무,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청 소속 기록관의 현황과 업무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기관 기록연구사들을 대상으로 직무특성, 직무환경, 근무여건 등의 요인들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방기록연구사들의 업무운영 실태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했다. 조사결과 직무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전문성 발휘 기회가 낮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혜란과 옥원호(2008)는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기록연구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해 근무실태와 직무만족, 직무환경을 파악함으로써, 기록연구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주변 동료들의 낮은 이해수준으로 인해 직무만족도와 긍정적 인식이 감소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업무량과 인력의 조정 등을 통한 업무 재분장 및 기록연구사로서의 역할규명이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영학(2009)은 두 편의 연구논문을 통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 현황과 전망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에서 그는 기록연구사의 배치가 법률 규정대로 지켜지지 못함을 비판하며, 해당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기록물 폐기 혹은 비공개기록물 관리 등에 있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가 힘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혜진(2013) 역시 공공기관들 조차도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가 유명무실함을 비판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중앙행정부처의 기록연구사들을 대상으로 직무를 4개의 책무와 19개의

업무, 78개의 요인으로 세분화해 파악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층면접, 설문지법, IPA 기법을 활용해 기록연구사의 업무 중 무엇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을지를 제언했다. 임미경(2010)은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기초자치단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의 인터뷰를 이용한 기초자치단체의 기록관리 현황연구를 통해 시설과 장비의 부족, 비정규직 채용, 기관 내 인식부족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관련 연구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적사항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비정규직 채용과 인식부족이었으며, 기관 내 인식제고 및 행정적 지원 강화 등이 제언으로서 가장 많이 등장했다.

그 외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참고가 되었다. 박숙영(2017)은 209명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와 경력개발 두 부분에서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간의 관계에서는 조직분위기와 개인의 역할 부분에서 우울증상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김지혜(2014)는 사회비교경향성이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함에 있어서의 관계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을 자아존중감으로 가정해 그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사회비교경향성과 불안은 정적 상관관계가, 사회비교경향성과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관계가, 자아존중감과 불안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자아존중감 향상이

불안이 야기되는 과정에 있어 긍정적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현아(2014)는 당뇨병자의 우울, 불안이 스트레스와 자살충동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고, 그 결과 당뇨병자의 스트레스가 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불안이 스트레스와 자살충동 사이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윤명숙과 김성혜(2014)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 있어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부분매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밝힌 바 있으며, 문유석(2011)은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그 영향요인을 추적한 바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관심은 1920년대 중반 Hans Selye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심리학 분야에서의 역사는 2차대전이 끝난 후 1950년대 Lazarus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그 이후 60년대 Kahn et al.(1964) 등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조직적 스트레스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수백권의 관련 단행본과 수십만 권의 출판물이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서구에서는 이미 스트레스가 stressology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었으며, 조직스트레스(organizational stress) 혹은 직무스트레스(job stress)라는 용

어가 일반 교과서에서도 상당부분 거론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조건, 요인들은 각 분야의 연구자들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분류하고, 직무스트레스의 개념적 정의 또한 여러 학문들에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정의되고 있으며, 대개 연구는 통상적으로 자극개념, 반응개념, 자극-반응개념 세 가지 형태 차원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바라보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직무스트레스를 하나의 자극으로 보는 견해는 직무스트레스를 조직 구성원들의 심신 안정 파괴요인으로 보는 시각으로, 과잉업무, 역할갈등 내지는 역할모호성, 좋지 않은 작업환경 등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바라본다. 둘째로 직무스트레스를 특정한 욕구나 자극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직무스트레스를 열악한 근무환경 등 개인에게 부정적인 업무적 외부자극으로 인해 특정 개인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나 의식으로 보는 견해로, 예를 들면 과잉업무로 인해 근무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감정 등으로 보는 시각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접근은 직무스트레스를 보다 광의적으로 해석해, 직무스트레스를 유기체와 조직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시각이다. 즉 직무스트레스를 개인의 능력이 조직의 직무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조직이 제공하는 직무환경이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는 견해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1999)에서는 “직무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람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부정적 자극요인과, 해당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한 심리적 반응’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상태불안

불안은 크게 상태불안(State Anxiety)과 특성불안(Trait Anxiety)으로 나뉜다. 이는 Spielberger와 Gorsuch, Lushene가(1970) STAI(State Trait Anxiety Inventory)라는 상태 특성불안 검사를 최초로 제작하면서 시작된 연구이며, 2년 뒤 Spielberger(1972)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개념적으로 최초로 구분했다. 상태불안이란 긴박한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으로서의 불안을 말하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강도가 주관적으로 변화하는 정서 상태이다. 주어진 어떤 환경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면 상태불안은 높아진다. 그러나 긴장이나 위협이 내재되어 있는 환경이라도 개인이 그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지 않을 때에는 상태불안의 정도가 높지 않다. 그에 반해 특성불안은 개인에게 비교적 일정하게 지속되는 불안 경향으로서 특정상황에서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반응할 때까지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불안 양상이다. 즉, 어떤 사람을 가리켜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적용되는 불안으로 ‘한 사람의 특성으로서의 불안’을 의미한다(김지혜, 2014).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 각자의 고유한 특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기록관리 업무를 대하는 상황에서 있어서의 불안수준에 집중하고자 하여, 특성불안

보다는 상태불안 척도를 채택해 설문조사에 사용했다.

2.3 우울

우울은 소진, 만성피로, 신체화 증상 등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다소 광의적인 개념으로(Tennant, 2001), 본 연구에서 언급할 우울이란 단순한 우울감이 아닌 우울증상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단순히 우울한 현상 또는 며칠 간 우울한 것보다 더 심한 증상을 의미하며, 슬픔, 평소에 즐기던 것에 대한 기쁨의 상실, 체중변화, 수면장애, 수면과다, 체력 손실, 무기력감, 죽음 혹은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의학적 질병이다(이상현, 2015). 또한 근로자로 하여금 업무의 불만족, 의욕 상실 및 감당할 수 없는 정서적 갈등 등의 축적 등으로 인해 경험하게끔 하게 되며, 사업장의 생산성 저하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tewart et al., 2003; 박숙영, 2017).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제정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신질환분류 척도인 DSM-IV에 의하면, 우울은 주요 정서장애의 하나로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현저한 저하를 포함하고, 우울, 의기소침, 신체적 고통, 사소한 일에 대한 과민반응, 취미에 대한 흥미감소, 식욕감소 또는 식욕 증가, 불면증, 에너지 저하와 피곤, 무가치감과 죄책감, 사고력, 집중력, 결정능력의 저하,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과 시도 중 3가지 이상의 증상이 거의 매일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지속될 때 우울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배점모, 2011).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결과물들을 토대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했다.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을 참고해 각 기관의 홈페이지 상에 기재되어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기관 내 직통번호를 모으거나, 기관의 총무과나 인사과에 연락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통번호를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연락처들을 확보했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설문조사 참여의사를 확인했으며, 참여의사를 보인 인원 144명에게 이메일 주소를 받아 온라인 설문 링크와 설문지 워드파일이 첨부된 메일을 발송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플랫폼으로는 구글 폼(Google forms)을 이용했다. 온라인으로 직접 응답한 인원은 55명이었고, 기관 내 보안상의 문제로 43명의 인원이 작성된 한글파일 혹은 설문지 스캔본 등을 첨부해 메일로 회신하거나, 연구자의 직접적인 방문회수를 통해 설문을 제출했다. 설문지 수집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총 98명분의 설문데이터를 확보했고, 회수율은 68.1%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1차적으로 Excel을 이용해 코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SPSS for Windows ver.23.0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계분석을 시도했다.

3.2 측정도구

직무스트레스 설문지 문항들의 경우, 현재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도구 KOSS(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를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두고 문항들을 구성하였다(장세진 외, 2005). KOSS는 전국의 사업장 근로자 30,146명을 토대로 타당도와 신뢰도 평가를 거쳤으며, 한국인의 직장문화와 사고방식 등을 고려해 직무상 경험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김미영, 오창석, 2011). 각 요인들은 물리적 환경요인, 직무요구요인, 직무자율성 요인, 관계갈등 요인, 직무불안정 요인, 조직체계 요인, 보상부적절 요인, 직장문화 요인으로 총 4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세진 외 연구자들의 2005년 연구논문에서는 부록을 통해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설문문항도 함께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KOSS와 함께, KOSS의 개발의 바탕이 된 연구 중 하나인 Karasek 외 연구자들(1998)의 요구-통제모델 기반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인 JCQ(Job Content Questionnaire)와, NIOSH에서 개발한 JSQ(Job Stress Questionnaire)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한국어 해석판(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1)과, 사무직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이종목과 박한기(1988)의 직무스트레스 척도제작에 관한 연구논문과, 이종윤과 조현양(2013)이 개발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참고해 독자적으로 설문문항을 재개발했다. 설문에 사용한 하

위요인은 물리적 환경요인, 신체적 직무요구요인, 심리적 직무요구 요인, 업무경계 갈등요인, 의사결정 및 책임요인, 동료관계 갈등요인, 상하관계 갈등요인, 업무보상 평가요인으로 총 9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3개 문항으로 구성된 각 문항들의 점수를 평균을 낸 값이 직무스트레스 수준으로서 연구에 사용되었다.

상태불안 측정도구는 Spielberger와 공동 연구자들(1970)에 의해서 개발된 상태-특성 불안 검사를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1993)이 한국어판 척도로 표준화한 것을 거의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였다. 상태-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각각 20개 문항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본 척도에 존재하는 역채점 문항들은 문구를 수정해 불안수준 분석이 한 번에 가능하게끔 만들었다(김지혜, 2014). 우울증상의 측정도구로는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 Depression Scale)를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Radloff, 1977; 전점구, 최상진, 양병창, 2001), 마찬가지로 문항에 있어 가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된 설문항목들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직무스트레스와 상태불안, 우울 모두 Likert 척도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그렇지 않다 = 2점, 보통이다 = 3점, 그렇다 = 4점, 매우 그렇다 = 5점으로 측정되었고, 상태불안과 우울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그렇지 않다 = 2점, 그렇다 = 3점, 매우 그렇다 = 4점으로 측정되었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각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해 분석했으며, 신뢰도계수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보통 신뢰

〈표 1〉 설문항목 내용

항목		내용
직무 스트레스	물리적 환경요인	근무장소의 쾌적성 부족, 소음수준, 독립된 업무공간 부재, 설비 노후화
	신체적 직무요구 요인	육체노동 요구, 불편한자세로 장시간근무, 높은 업무강도 및 밀도
	심리적 직무요구 요인	높은 업무난이도, 빠른 업무속도, 장시간의 집중력 요구
	업무복잡성 요인	동시다발적 업무처리, 과다업무 및 업무한계 불명확, 업무성격 불확실
	업무경계 갈등요인	경영진, 동료, 상사들의 업무이해도 부족, 과도한 행정업무
	의사결정 및 책임요인	전공분야관련 영향력 및 결정권, 발언권 부족
	동료관계 갈등요인	동료들의 도움 부재, 협력 및 협업의 어려움, 일체감 또는 유대감 부재
	상하관계 갈등요인	상사의 도움 부재, 직원복지 무관심, 의견 미반영, 모호한 업무지시
	업무보상 평가요인	경력개발 및 승진의 어려움, 임지 및 봉급수준 부적절, 존중 및 신입 부족
상태불안		긴장감, 후회감, 짜증감, 만족감, 자신감부족, 즐거움부족 (STAI)
우울		식욕부진, 압담함, 무기력, 집중력저하, 공허감, 불면, 두려움 (CES-D)

〈표 2〉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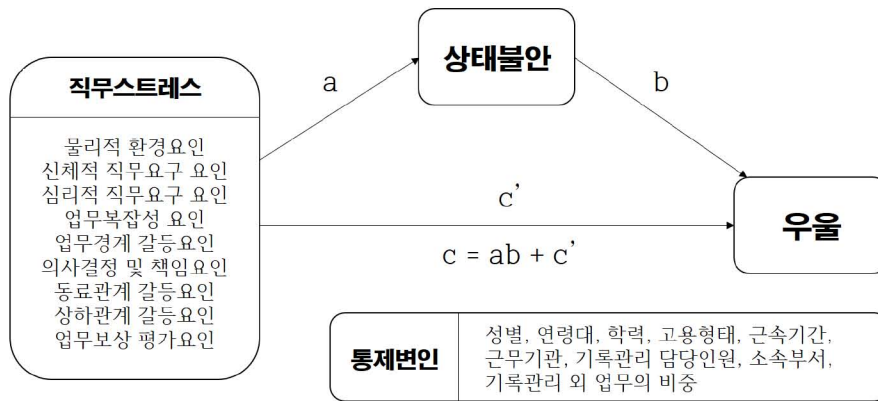
변수		N	Cronbach's α
직무 스트레스 수준	물리적 환경요인	4	.709
	신체적 직무요구 요인	3	.744
	심리적 직무요구 요인	3	.739
	업무복잡성 요인	3	.814
	업무경계 갈등요인	3	.824
	의사결정 및 책임요인	3	.864
	동료관계 갈등요인	5	.842
	상하관계 갈등요인	4	.822
	업무보상 평가요인	5	.885
	전체문항	33	.933
상태불안 수준		20	.948
우울 수준		20	.963

도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무난한 수준으로 판단하며, 0.7 이상이면 신뢰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3.3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상태불안이 그 사이에서 어떠한 형태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매개효과는 심리학의 초기 패러다임인 자극-반응

패러다임(stimulus-response: S-R paradigm)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Woodworth에 의해 제안된 자극-유기체-반응 패러다임(stimulus-organism-response: S-O-R paradigm)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어떤 자극에 노출되면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 내에서 작동하는 매커니즘을 통해 반응한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 이론으로(Hayes, 2013), 〈그림 1〉은 독립변인인 직무스트레스, 종속변인인 우울 수준 사이에서 상태불안 수준이 두



〈그림 1〉 연구모형

변인 사이의 매커니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세워진 연구모형이다.

4. 연구결과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 분석

먼저, 조사 및 분석대상이 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분포는 〈표 3〉과 같다. 연령대는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기록관리 대학원을 졸업한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록관리 담당인원이 2명 이상인 곳보다는 한 명이 홀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소속부서는 기록관이나 기록팀으로 따로 분리된 업무집단에서 일하기보다는 총무과나 민원과, 운영지원과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설문에 응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요인별, 수준별 값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을 시도했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별 기술통

계 분석 값은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의 최대값은 4.10, 전체적인 평균값은 2.91 수준으로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의 요인별 평균값은 업무경계 갈등요인(3.50), 심리적 직무요구 요인(3.49), 업무복잡성 요인(3.39), 업무보상 평가요인(3.10), 신체적 직무요구 요인(2.95), 의사결정 및 책임요인(2.53), 상하관계 갈등요인(2.52), 동료관계 갈등요인(2.44), 물리적 환경요인(2.27)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직무스트레스 수준의 표준편차는 .560으로 나타났으며, 상태불안 수준의 경우 최대값은 3.30, 평균값은 1.89, 표준편차는 .545로 나타났다. 우울수준의 경우 최대값은 3.80, 평균값은 1.94로 나타나 상태불안 수준의 값들을 살짝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568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이 업무에 있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요인은 업무경계 갈등요인, 심리적 직무요구 요인, 업무복잡성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료관계 갈등요인, 물리적 환경요인의 경우 전체적인 수준이 상대적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38	38.8%
	여성	60	61.2%
연령대	20대	3	3.1%
	30대	71	72.4%
	40대 이상	24	24.5%
학력	기록관리 대학원 졸업	88	89.8%
	기록관리 교육원 졸업	10	10.2%
고용형태	정규직	61	62.2%
	비정규직	37	37.8%
근속기간	1년 미만	8	8.2%
	1~3년 미만	20	21.4%
	3~5년 미만	20	19.4%
	5~10년 미만	43	43.9%
	10년 이상	7	7.1%
근무기관	중앙행정기관	15	15.3%
	정부산하 공공기관	5	5.1%
	지방행정기관	43	43.9%
	대학교	26	26.5%
	교육청	9	9.2%
기록관리 담당인원	1명	75	76.5%
	2명 이상	23	23.5%
소속부서	기록관 or 기록팀 근무	14	14.3%
	그 외	84	85.7%
기록관리 외 업무의 비중	0%	12	12.2%
	0~20%	31	31.6%
	20~40%	23	23.5%
	40~60%	23	23.5%
	60~80%	6	6.1%
	80% 이상	3	3.1%

〈표 4〉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 결과값

변수		점수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직무 스트레스 수준	물리적 환경요인	1 ~ 5	1.00	4.50	2.27	.812
	신체적 직무요구 요인	1 ~ 5	1.00	4.67	2.95	.772
	심리적 직무요구 요인	1 ~ 5	1.33	5.00	3.49	.674
	업무복잡성 요인	1 ~ 5	1.00	5.00	3.39	.864
	업무경계 갈등요인	1 ~ 5	1.00	5.00	3.50	.941
	의사결정 및 책임요인	1 ~ 5	1.00	5.00	2.53	.811
	동료관계 갈등요인	1 ~ 5	1.00	5.00	2.44	.813
	상하관계 갈등요인	1 ~ 5	1.00	4.50	2.52	.719
	업무보상 평가요인	1 ~ 5	1.20	5.00	3.10	.901
전체문항		1 ~ 5	1.72	4.10	2.91	.560
상대불안 수준		1 ~ 4	1.00	3.30	1.89	.545
우울 수준		1 ~ 4	1.00	3.80	1.94	.568

〈표 5〉는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요인별 평균값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 분석기법은 평균비교검정 방법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t-test, ANOVA기법을 사용했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업무평가 보상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연령대에 따라서는 신체적 직무요구 요인, 업무복잡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물리적 환경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상하관계 갈등요인, 업무보상 평가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근무기간에 따라서는 물리적 환경요인, 신체적 직무요구 요인, 의사결정 및 책임요인, 동료관계 갈등요인, 상하관계 갈등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상하관계 갈등요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담당인원에 따라서는 물리적 환경요인, 신체적 직무요구 요인, 업무복잡성 요인, 업무경계 갈등요인, 의사결정 및 책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소속부서에 따라서는 물리

적 환경요인, 업무경계 갈등요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록관리 외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는 물리적 환경요인, 업무복잡성 요인, 업무경계 갈등요인, 의사결정 및 책임요인, 상하관계 갈등요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리적 직무요구 요인은 유일하게 그 어떤 인구사회학적 특성차이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은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수준, 상태불안 수준, 우울 수준별 평균값 차이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 연령대에 따라서는 상태불안 수준과 우울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수준, 상태불안 수준, 우울 수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근무기간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록관리 담당인원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수준, 상태불안 수준, 우울 수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기록관리 외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요인 t/F 검정값

특성 \ 요인	물리적 환경요인	신체적 직무요구 요인	심리적 직무요구 요인	업무 복잡성 요인	업무경계 갈등요인	의사결정 및 책임요인	동료관계 갈등요인	상하관계 갈등요인	업무보상 평가요인
성별	.782	-1.139	-1.662	-1.045	.146	-.130	-1.492	-.530	-2.074*
연령대	1.106	3.533*	2.691	4.435*	1.008	1.401	.949	1.844	.173
학력	-3.032**	-.470	.257	.667	-.263	-1.135	.371	-1.920	-.387
고용형태	-1.902	-1.879	-1.681	-.845	-1.558	-.353	-.582	-2.768**	-2.975**
근속기간	2.563*	3.344*	.822	.865	1.447	4.579**	2.587*	2.796*	1.625
근무기관	1.678	1.265	2.211	1.089	2.110	1.093	1.643	2.339*	1.485
담당인원	4.903***	2.303*	-1.045	2.912**	4.200***	4.413***	1.551	1.841	1.978
소속부서	2.139*	.220	-.967	.747	2.382*	1.732	-.338	2.029	1.874
타업무비중	4.420***	1.705	1.179	3.362**	9.504***	2.701*	1.984	4.492***	1.585

*p<0.05 **p<0.01 ***p<0.001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우울, 불안 수준 t/F 검정값

특성 수준	성별	연령대	학력	고용형태	근속기간	근무기관	소속부서	담당인원	타업무비중
스트레스	-1.108	2.613	-.584	-2.385*	2.983*	1.765	1.617	4.113***	5.016***
상태불안	-1.329	4.634*	.653	-2.130*	1.813	.887	.136	3.530***	1.979
우울	-.528	4.025*	.658	-2.427*	1.465	1.025	.532	3.522***	1.588

*p<0.05 **p<0.01 ***p<0.001

4.2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

매개분석을 시도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각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는 기본적으로 각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Pearson 직렬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으로 사용될 모든 변수들의 상관관계 결과값을 도출했다. Pearson 직렬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값은 상관관계수 R

의 값으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 값은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물리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직무요구 요인, 심리적 직무요구 요인과 업무경계 갈등요인, 심리적 직무요구 요인과 업무복잡성 요인, 심리적 직무요구 요인과 상하관계 갈등요인, 심리적 직무요구 요인과 업무보상 평가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 수준들 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즉, 직무스트레스와 상태불안, 우울 간에는 크게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7〉 주요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값

	물리적 환경요인	신체적 직무요구 요인	심리적 직무요구 요인	업무 복잡성 요인	업무경계 갈등요인	의사결정 및 책임요인	동료관계 갈등요인	상하관계 갈등요인	업무보상 평가요인	직무 스트레스 수준	상태불안	우울
1)	1											
2)	.447**	1										
3)	.042	.399**	1									
4)	.431**	.533**	.390**	1								
5)	.539**	.444**	.051	.664**	1							
6)	.467**	.357**	.059	.372**	.492**	1						
7)	.441**	.324**	.222*	.431**	.490**	.498**	1					
8)	.543**	.422**	.154	.461**	.586**	.554**	.623**	1				
9)	.367**	.294**	.188	.373**	.481**	.426**	.449**	.408**	1			
10)	.437**	.499**	.261*	.536**	.513**	.459**	.573**	.524**	.615**	1		
11)	.455**	.526**	.298**	.587**	.568**	.601**	.567**	.551**	.502**	.706**	1	
12)	.466**	.472**	.268**	.498**	.490**	.597**	.536**	.483**	.464**	.668**	.869**	1

*p<0.05 **p<0.01 ***p<0.001

1) 물리적 환경요인 2) 신체적 직무요구 요인 3) 심리적 직무요구 요인 4) 업무복잡성 요인 5) 업무경계 갈등요인 6) 의사결정 및 책임요인 7) 동료관계 갈등요인 8) 상하관계 갈등요인 9) 업무보상 평가요인 10) 직무스트레스 수준 11) 상태불안 12) 우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매개분석 기법은 흔히 통계학에서 BK 접근법이라 불리는 Baron & Kenny 접근법으로, <그림 1>에서 총효과 c에 해당하는 독립변인-종속변인 간 회귀분석을 먼저 시행하고, a에 해당하는 독립변인-매개변인 간 회귀분석을 시행한 후, b와 직접효과 c'에 해당하는 독립변인&매개변인-종속변인 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해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여기서 $c'=0$, 즉 $c=ab$ 라면 이를 완전매개(full mediation)라 하고, $c>ab$ 이며 $c'<c$ 라면 이를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라 하며, $c<ab$ 일 때 이를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라 한다. 단, 이 기법은 직접적인 검증이 아닌 일련의 변인검증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매개효과를 통한 검증이라는 한계가 있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b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는 Sobel test를 병행해 1.96 이상의 결과값이 나오면 매개효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본 연

구에서는 앞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직무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기록연구사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각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주목해, 이와 같은 변수들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각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했다. 각 통제변수들은 각각의 모든 회귀분석 모델들에 한꺼번에 적용되었으며, 회귀모델 상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만 표에 기재했다. 또한 상관계수 R값을 제공한 결정계수 R^2 값과 분산분석을 통한 F값을 함께 병기해 모형의 설명력을 함께 분석했다.

<표 8>은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값이다. 회귀모형 c와 a와 b의 p값이 모두 0.001보다 작게 나타났고, 회귀모형 c'가 유의한 값을 갖지 않아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나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Sobel test값은 6.709로

<표 8>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회귀모형 c (독립변인 → 종속변인)				회귀모형 a (독립변인 → 매개변인)			
		B	β	t	p	B	β	t	p
(상수)		.592		1.234	.220	.353		.872	.386
통제변수	소속부서					.235	.151	2.203	.030*
	담당인원	-.236	-.177	-2.009	.048*	-.272	-.212	-2.373	.008**
직무스트레스		.651	.641	7.431	.000***	.682	.701	9.221	.000***
R^2		.547				.648			
F		10.497***				16.050***			
		회귀모형 c' / b (독립변인/매개변인 → 종속변인)							
		B	표준화오류	β	t	p			
(상수)		.300	.347		.865	.389			
직무스트레스		.088	.089	.086	.987	.326			
상태불안		.826	.091	.792	9.025	.000***			
R^2		.767							
F		25.770***							

*p<0.05 **p<0.01 ***p<0.001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되었다. 통제변인들 중에서는 기록관리 담당인원이 회귀모형 c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속부서와 기록관리 담당인원이 회귀모형 a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 기록관리 담당인원의 회귀계수 값이 a와 c 모두에서 음수로 나타나 부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독립변수일 때 기록관리 담당인원이 늘어날수록 상태불안과 우울의 수준은 낮아지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정계수 R^2 값은 c에서는 .547, a에서는 .648, c'와 b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76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는 물리적 환경요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값이다. 회귀모형 c와 a와 b의 p값이 모두 0.001보다 작게 나타났고, 회귀모형 c'가 유의한 값을 갖지 않아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Sobel test 값은 3.683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되었다. 통제변인들 중에서는 기록관리 담당인원이 회귀모형 c와 a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의 값이 음수로 나타나 부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찬가지로 직무스트레스가 독립변수일 때 기록관리 담당인원이 늘어날수록 상태불안과 우울의 수준은 낮아지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정계수 R^2 값은 c에서는 .372, a에서는 .407, c'와 b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76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은 신체적 직무요구 요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값이다. 회귀모형 c와 a와 b의 p값이 모두 0.001보다 작게 나타났고, 회귀모형 c'가 유의한 값을 갖지 않아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Sobel test 값은

〈표 9〉 물리적 환경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회귀모형 c (독립변인 → 종속변인)				회귀모형 a (독립변인 → 매개변인)			
	B	β	t	p	B	β	t	p
(상수)	1.646		3.151	.002**	1.567		3.216	.002**
통제변인 담당인원	-.306	-.230	-2.200	.030*	-.368	-.287	-2.830	.006**
물리적 환경요인	.280	.401	3.960	.000***	.255	.380	3.866	.000***
R^2	.372				.407			
F	5.160***				5.967***			
	회귀모형 c' / b (독립변인/매개변인 → 종속변인)							
	B	표준화오류	β	t	p			
(상수)	.309	.337		.919	.361			
물리적 환경요인	.063	.047	.090	1.342	.183			
상태불안	.853	.070	.818	12.171	.000***			
R^2	.769							
F	26.089***							

*p<0.05 **p<0.01 ***p<0.001

〈표 10〉 신체적 직무요구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회귀모형 c (독립변인→종속변인)				회귀모형 a (독립변인→매개변인)			
	B	β	t	p	B	β	t	p
(상수)	1.580		2.932	.004**	1.375		2.817	.006**
통제변인 담당인원	-.333	-.250	-2.393	.019*	-.371	-.290	-2.945	.004**
신체적 직무요구 요인	.261	.355	3.715	.000***	.278	.394	4.367	.000***
R^2	.361				.430			
F	4.906***				6.561***			
	회귀모형 c' / b (독립변인/매개변인→종속변인)							
	B	표준화오류	β	t	p			
(상수)	.373	.343		-1.180	.241			
신체적 직무요구 요인	.017	.047	.023	.359	.720			
상태불안	.878	.072	.842	12.164	.000***			
R^2	.765							
F	25.444***							

*p<0.05 **p<0.01 ***p<0.001

4.153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되었다. 통제변인들 중에서는 기록관리 담당인원이 회귀모형 c와 a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의 값이 음수로 나타나 부정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계수 R^2 값은 c에서는 .361, a에서는 .430, c'와 b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76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은 심리적 직무요구 요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값이다. 회귀모형 c와 a의 p값은 0.01보다 작게 나왔고, b의 p값은 0.001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 c'가 유의한 값을 갖지 않아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obel test값은 2.487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되었다. 통제변인들 중에서는 기록관리 담당인원이 회귀모형 c와 a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

귀계수의 값이 음수로 나타나 부정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계수 R^2 값은 c에서는 .300, a에서는 .353, c'와 b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76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는 업무복잡성 요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값이다. 회귀모형 c와 a와 b의 p값이 모두 0.001보다 작게 나타났고, 회귀모형 c'가 유의한 값을 갖지 않아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Sobel test값은 4.518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되었다. 통제변인들 중에서는 기록관리 담당인원이 회귀모형 c와 a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의 값이 음수로 나타나 부정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계수 R^2 값은 c에서는 .358, a에서는 .453, c'와 b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76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심리적 직무요구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회귀모형 c (독립변인 → 종속변인)				회귀모형 a (독립변인 → 매개변인)			
	B	β	t	p	B	β	t	p
(상수)	1.938		3.485	.001**	1.765		3.443	.001**
통제변인 담당인원	-.492	-.369	-3.483	.001**	-.540	-.422	-4.146	.000***
심리적 직무요구 요인	.182	.216	2.245	.027*	.190	.235	2.548	.013*
R ²	.300				.353			
F	3.724***				4.751***			
	회귀모형 c' / b (독립변인/매개변인 → 종속변인)							
	B	표준화오류	β	t	p			
(상수)	.377	.345		1.093	.278			
심리적 직무요구 요인	.014	.049	.016	.280	.780			
상태불안	.884	.068	.848	13.041	.000***			
R ²	.765							
F	25.424***							

*p<0.05 **p<0.01 ***p<0.001

〈표 12〉 업무복잡성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회귀모형 c (독립변인 → 종속변인)				회귀모형 a (독립변인 → 매개변인)			
	B	β	t	p	B	β	t	p
(상수)	1.491		2.700	.008**	1.176		2.406	.018*
통제변인 담당인원	-.320	-.240	-2.275	.025*	-.341	-.267	-2.740	.007**
업무복잡성 요인	.249	.378	3.662	.000***	.292	.463	4.860	.000***
R ²	.358				.453			
F	4.853***				7.215***			
	회귀모형 c' / b (독립변인/매개변인 → 종속변인)							
	B	표준화오류	β	t	p			
(상수)	.433	.347		1.248	.216			
업무복잡성 요인	-.014	.047	-.021	-.300	.765			
상태불안	.899	.074	.863	12.197	.000***			
R ²	.765							
F	25.429***							

*p<0.05 **p<0.01 ***p<0.001

〈표 13〉은 업무경계 갈등요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값이다. 회귀모형 c와 a와 b의 p값이 모두 0.001보다 작게 나타났고, 회귀모형 c'가 유의한 값을 갖지 않아 완전매개 효과가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Sobel test값은 5.054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되었다. 통제변인들 중에서는 기록관리 담당인원이 회귀모형 c와 a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의 값이 음수로 나

〈표 13〉 업무경계 갈등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회귀모형 c (독립변인→종속변인)				회귀모형 a (독립변인→매개변인)			
	B	β	t	p	B	β	t	p
(상수)	1.442		2.679	.009**	1.101		2.353	.021*
통제변수 담당인원	-.327	-.245	-2.386	.019*	-.347	-.271	-2.911	.005**
업무경계 갈등요인	.266	.441	4.093	.000***	.318	.548	5.614	.000***
R^2	.379				.490			
F	5.304***				8.351***			
	회귀모형 c' / b (독립변인/매개변인→종속변인)							
	B	표준화오류	β	t	p			
(상수)	.443	.343		1.290	.200			
업무경계 갈등요인	-.022	.047	-.036	-.464	.644			
상태불안	.907	.076	.870	11.897	.000***			
R^2	.765							
F	25.477***							

*p<0.05 **p<0.01 ***p<0.001

타나 부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계수 R^2 값은 c에서는 .379, a에서는 .490, c'와 b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76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는 의사결정 및 책임요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값이다. 회귀모형 c와 a와 b의 p값이 모두 0.001보다 작게 나타났고, 회귀모형 c'가 유의한 값을 갖지 않아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Sobel test값은 5.335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되었다. 통제변인들 중에서는 고용형태와 기록관리 담당인원이 회귀모형 c에, 고용형태와 소속부서와 기록관리 담당인원이 회귀모형 a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록관리 담당인원의 회귀계수 값이 음수로 나타나 부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계수 R^2 값은 c에서는 .482, a에서는 .517, c'와

b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77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는 동료관계 갈등요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값이다. 회귀모형 c와 a와 b의 p값이 모두 0.001보다 작게 나타났고, 회귀모형 c'가 유의한 값을 갖지 않아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Sobel test값은 5.105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되었다. 통제변인들 중에서는 고용형태와 기록관리 담당인원이 회귀모형 c에, 고용형태와 소속부서와 기록관리 담당인원이 회귀모형 a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록관리 담당인원의 회귀계수 값이 음수로 나타나 부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계수 R^2 값은 c에서는 .444, a에서는 .497, c'와 b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76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의사결정 및 책임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회귀모형 c (독립변인 → 종속변인)				회귀모형 a (독립변인 → 매개변인)			
		B	β	t	p	B	β	t	p
(상수)		1.273		2.664	.009**	1.199		2.708	.008**
통제변수	고용형태	.233	.200	2.470	.015*	.174	.156	1.994	.049*
	소속부서					.281	.181	2.243	.027*
	담당인원	-.285	-.213	-2.285	.025*	-.344	-.268	-2.974	.004**
의사결정 및 책임요인		.384	.548	6.127	.000***	.359	.533	6.175	.000***
R ²		.482				.517			
F		8.110***				9.303***			
		회귀모형 c' / b (독립변인/매개변인 → 종속변인)							
		B	표준화오류	β	t	p			
(상수)		.302	.331		.913	.364			
의사결정 및 책임요인		.094	.050		.133	.064			
상태불안		.810	.077		.777	10.526			
R ²		.774							
F		26.749***							

*p<0.05 **p<0.01 ***p<0.001

〈표 15〉 동료관계 갈등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회귀모형 c (독립변인 → 종속변인)				회귀모형 a (독립변인 → 매개변인)			
		B	β	t	p	B	β	t	p
(상수)		1.758		3.725	.000***	1.622		3.770	.000***
통제변수	담당인원	-.356	-.267	-2.797	.006**	-.405	-.316	-3.490	.001**
동료관계 갈등요인		.318	.455	5.371	.000***	.311	.464	5.760	.000***
R ²		.444				.497			
F		6.937***				8.590***			
		회귀모형 c' / b (독립변인/매개변인 → 종속변인)							
		B	표준화오류	β	t	p			
(상수)		.398	.330		1.206	.231			
동료관계 갈등요인		.057	.045		.082	.208			
상태불안		.838	.076		.804	11.003			
R ²		.769							
F		26.016***							

*p<0.05 **p<0.01 ***p<0.001

〈표 16〉은 상하관계 갈등요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값이다. 회귀모형 c와 a와 b의 p값이 모두 0.001보다 작게 나타났고, 회귀모형 c'가 유의한 값을 갖지 않아 완전매개 효과가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Sobel test값은 5.311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되었다. 통제변인들 중에서는 고용형태와 기록관리 담당인원이 회귀모형 c에, 고용형태와 소속부서와 기록관리 담당인원이 회귀모형 a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록 관리 담당인원의 회귀계수 값이 음수로 나타나 부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 계수 R^2 값은 c에서는 .399, a에서는 .508, c'와

b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76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은 업무보상 평가요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에

<표 16> 상하관계 갈등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회귀모형 c (독립변인 → 종속변인)				회귀모형 a (독립변인 → 매개변인)			
	B	β	t	p	B	β	t	p
(상수)	1.738		3.495	.001**	1.479		3.429	.001**
통제변수 담당인원	-.451	-.338	-3.457	.001**	-.495	-.387	-4.375	.000***
상하관계 갈등요인	.326	.413	4.507	.000***	.377	.497	5.999	.000***
R^2	.399				.508			
F	5.785***				8.996***			
	회귀모형 c' / b (독립변인/매개변인 → 종속변인)							
	B	표준화오류	β	t	p			
(상수)	.408	.333		1.224	.224			
상하관계 갈등요인	-.012	.054	-.016	-.231	.818			
상태불안	.899	.078	.862	11.557	.000***			
R^2	.765							
F	25.415***							

*p<0.05 **p<0.01 ***p<0.001

<표 17> 업무보상 평가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회귀모형 c (독립변인 → 종속변인)				회귀모형 a (독립변인 → 매개변인)			
	B	β	t	p	B	β	t	p
(상수)	1.971		4.036	.000***	1.802		4.085	.000***
통제변수 소속부서					.282	.182	2.123	.037*
담당인원	-.403	-.302	-3.048	.003**	-.447	-.350	-3.743	.000***
업무보상 평가요인	.249	.394	4.307	.000***	.259	.428	4.961	.000***
R^2	.389				.458			
F	5.547***				7.358***			
	회귀모형 c' / b (독립변인/매개변인 → 종속변인)							
	B	표준화오류	β	t	p			
(상수)	.405	.332		1.220	.226			
업무보상 평가요인	.024	.041	.038	.585	.560			
상태불안	.869	.074	.833	11.747	.000***			
R^2	.766							
F	25.526***							

*p<0.05 **p<0.01 ***p<0.001

대한 분석값이다. 회귀모형 c와 a와 b의 p값이 모두 0.001보다 작게 나타났고, 회귀모형 c'가 유의한 값을 갖지 않아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Sobel test 값은 4.585 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되었다. 통제변인들 중에서는 고용형태와 기록관리 담당 인원이 회귀모형 c에, 고용형태와 소속부서와 기록관리 담당인원이 회귀모형 a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록관리 담당 인원의 회귀계수 값이 음수로 나타나 부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계수 R^2 값은 c에서는 .389, a에서는 .458, c'와 b의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76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우울, 상태불안 수준의 차이와 함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 상태불안 수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들을 위주의 선행연구들과 함께 직무스트레스와 상태불안, 우울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조사하였고, 현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98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 상태불안 수준, 우울 수준 설문데이터를 수집해 매개분석을 시도했다.

먼저 t-test, ANOVA 기법을 이용해 직무스트레스 요인들 간의 평균비교분석을 시도한 결

과, 직무스트레스 요인들의 평균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두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바로 담당 인원과 기록관리 외 업무비중으로 나타났고, 같은 방법을 통해 가장 두드러지는 직무스트레스 수준, 상태불안 수준, 우울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고용형태와 담당인원에서 가장 큰 인구사회학적 특성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담당인원별로 p값이 0.01 미만 수준으로 큰 평균차이가 나타난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물리적 환경요인, 업무복잡성 요인, 업무경계 갈등요인, 의사결정 및 책임요인으로 나타났다으며, 또한 직무스트레스 수준, 상태불안 수준, 우울 수준에서는 모두 0.001 미만의 p값이 나타날 만큼 단독 근무자들과 2명 이상 근무자들 사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기록관리 외 업무비중별로 p값이 0.01 미만 수준으로 큰 평균차이가 나타난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물리적 환경요인, 업무복잡성 요인, 업무경계 갈등요인, 상하관계 갈등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직무스트레스 수준에서 0.001 미만의 p값이 나타날 만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은 업무경계로 인한 갈등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인, 우울 수준을 종속변인, 상태불안 수준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들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후 Baron&Kenny식 접근 기법을 통해 매개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모든 요인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우울 수준 사이에서 상태불안 수준이 완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업무에 있어서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상태불안이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

이에서 매커니즘 역할을 크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태불안 수준을 관리해 경감시켜야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일련의 총효과 회귀분석 모델들에 있어 역시 담당인원이 통제변인으로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으며, 소속부서, 고용형태 순서로 그 뒤를 이어 통제변인으로서 큰 영향을 미쳤다. 즉, 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상태불안, 우울 모두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바로 기록관리 담당인원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록물관리 담당인원의 전반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75% 이상이 기관에서 홀로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앞선 선행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은 기관 내에서 홀로 근무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적 부분, 특히 기록연구사 채용에 관한 부분에 있어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제 78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조항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권고조항에 불과해 여전히 배치가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통계에 따르면 기록관리와 상관없는 부수적인 근무를 병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87.8%에 달하며, 심지어 기관 내에서 수행하는 근무의 60% 이상이 기록관리와는 상관없는 업무인 케이스도 9.2% 썩이나 되었다. 이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고유 업무인 기록물관리 지도 및 교육업무의 실천적 부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보완 내지는 강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며, 나아가 다른 업무들에 방해받지 않고 기록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적연구로서는 표본의 크기가 다소 작다는 점과, 통제변인이 매개효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매개변수와 총효과에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있어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록관리학 내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스트레스와 불안 및 우울을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함의한 첫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다소 거시적인 요인, 특성들을 망라적으로 분석한 연구이기 때문에, 요인들 사이의 세밀한 관계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앞으로의 기록관리 환경의 개선에 있어 유의한 방향성을 제시했기를 바라면서, 기록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미영, 오창석 (2011). 콜센터 고객 상담원의 직무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비교 분석. 보건의료산업학회지, 5(2), 187-197. <http://dx.doi.org/10.12811/kshsm.2011.5.2.187>
- 김지혜 (2014). 중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상담심리전공.
- 문유석 (2011). 경찰관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14(4), 41-60.
- 박숙영 (2017).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박태섭, 강순애 (2017). IPA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기록연구사의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1), 163-192.
- 배점모 (2011).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 및 우울간의 관계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재난과학과.
- 서혜란, 옥원호 (2008). 기록연구사의 근무실태 및 제도운영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35-255.
- 송혜진 (2013). 기록전문직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부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과.
- 유현경, 김수정 (201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7, 95-130.
- 윤명숙, 김성혜 (2014).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 관계에 미치는 우울과 사회적지지의 다중매개 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2), 5-34.
- 이상현 (2015). 호텔종사원의 감정노동과 우울증상, 직무스트레스에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 이영학 (2009).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 현황과 전망. 기록학연구, 21, 323-353.
- 이을지, 이호신 (2016).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직무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131-156.
- 이종목, 박한기 (1988). 직무 스트레스 척도제작에 관한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4(1), 241-262.
- 이종윤, 조현양 (2013). 대학도서관 사서의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 개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181-205.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3.181>
- 이현아 (2014). 당뇨병자의 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우울·불안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임미경 (2010). 기초자치단체 기록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관리전공.

- 장세진, 고상백, 강동묵, 김성아, 강명근, 이철갑, ... 손동국 (2005).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17(4), 297-317.
- 전점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하영, 강순애 (2013). 서울특별시 자치구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직무특성 및 직무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57-8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3.13.2.057>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1). 직업성 스트레스 조사표 개발: NIOSH 조사표의 한국어 판 개발. 인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 (1993).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3(1), 505-512.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ahn, R. L., Wolfe, D. M., Quinn, R. P., Snoek, J. D., & Rosenthal, R. A. (1964). *Organizational stress: Studies in role conflict and ambiguity*. Oxford, England: John Wiley.
- Karasek, R., Brisson, C., Kawakami, N., Houtman, I., Bongers, P., & Amick, B. (1998). The job content questionnaire (JCQ): An instrument for internationally comparative assessments of psychosocial job characteristic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3(4), 322-355. <http://dx.doi.org/10.1037/1076-8998.3.4.322>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Tennant, C. (2001). Work-related stress and depressive disorder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1(5), 697-704. [https://doi.org/10.1016/S0022-3999\(01\)00255-0](https://doi.org/10.1016/S0022-3999(01)00255-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60호, 2018.01.01., 일부개정]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Bae, Jeom-Mo (2011).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post-traumatic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of policemen and firefighte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Department of Disaster Science.
- Chang, Sei-Jin, Koh, Sang-Baek, Kang, Dongmug, Kim, Seong-Ah, Kang, Myung-Geun, Lee,

- Chul-Gab, ... Son, Dong-Kook (2005). Developing 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or Korean employees.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7(4), 297-317.
- Chon, Kyum-Koo, Choi, Sang-Chin, & Yang, Beyong-Chang (2001).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in Korea. *Korea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1), 59-76.
- Han, Duk-Woong, Lee, Chang-Ho, & Tak, Jin-Kook (1993). Standardization of Spielberger's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3(1), 505-512.
- Jung, Ha-Young, & Kang, Soon-Ae (2013). A study on job characteristics and job environment of records manager affiliated autonomous district in Seou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2), 57-8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3.13.2.057>
- Kim, Ji-Hye (2014).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on anxiety: Self-esteem as a mediator.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 Kim, Mi-Young, & Oh, Chang-Seok (2011). Comparision of job stress according to job-related properties in call center employe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5(2), 187-197. <http://dx.doi.org/10.12811/kshsm.2011.5.2.187>
- Lee, Chong-Mok, & Park, Han-Kee (1988).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job stress (1).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4(1), 241-262.
- Lee, Eul-Ji, & Lee, Hosin (2016).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tasks of record managers in offices of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3), 131-156.
- Lee, Hyeon-A (2014). The impact of stress in diabetic patients on their suicidal impulse: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anxiety.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Lee, Jong-Yoon, & Cho, Hyun-Yang (2013). Development of work stress measurement tool for academic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181-205.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3.181>
- Lee, Sanghyun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depressive symptoms and job stress of hotel employees: Focusing on five star hotels of Seoul.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Department of Hotels Management.
- Lee, Young-Hak (2009).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 of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1, 323-353.

- Lim, Mi-Kyung (2010). Study on current records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 and its improvement.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Department of Records and Archival Information Management.
- Moon, Yoo-Seok (2011). The level and influencing factors of police officers' job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4(4), 41-60.
-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under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001). Development of occupational stress survey table: Development of Korean edition of NIOSH survey table. Incheon: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under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 Park, Sook-Young (2017). Influence of job stress factors on job satisfaction among local officials: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Park, Tae-Sub, & Kang, Soon-Ae (2017). A study on the job analysis for records managers in the local governments.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17(1), 163-192.
- Song, Hae-Jin (2013). Study on the job analysis of the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 Focusing 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ministry.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ves Management.
- Suh, Hye-Ran, & Ock, Won-Ho (2008). An empirical study concerning the issues of working conditions and operational system of archivis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8(1), 235-255.
- Yoo, Hyeon-Gyeong, & Kim, Soojung (2016). A study on job satisfaction of records manager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7, 95-130.
- Yoon, Myeong-Sook, & Kim, Sung-Hye (2014).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between the relationship job stress and quality of life among firefighte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42(2), 5-34.